

페미니즘(feminism)의 사상적  
변천사에 대한 논의곽혜원<sup>1)</sup>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

## I. 문제 제기: 여성 주도 성혁명과 페미니즘 논의의 중요성

여성 주도의 글로벌 성혁명(global sexual revolution)이 21세기 문명을 강타하고 있다. 서구세계를 문명사적으로 뒤바꿔놓은 '68혁명'을 결정적 분기점으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성혁명을 강행하고 있다.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성혁명을 일으킨 배후에는 여성차별의 장구한 폐습이 근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여성들은 생물학적 섹스(sex)보다는 사회·문화적 젠더(gender)를 통해 성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이는 남녀 사이의 성차(性差)가 생물학적 결정이 아닌 사회·문화적 관행의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기존의 생물학적 섹스 대신, 사회·문화적 젠더를 성관련 주류 용어로 새롭게 정착시켰다.

성혁명으로 인해 남녀 고유의 성정체성은 물론, 양성(兩性)이 결합하여 이루는 결혼 및 가정도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오늘날 여성들은 여성 차별의 강고한 질서로 간주되는 전통적 결혼 및 가족질서도 거부하는 가운데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일부일처제를 대체하는 대안적 생활공동체로서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퀴어(LGBTQ\*) 파트너십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파괴적 행위나 사상체계를 발전시킨 것은 거의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글로벌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성혁명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감행하는 것인데, 이는 문명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여성 주도 성혁명이 글로벌 세계를 강타한 상황 속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남녀관계가 대립과 반목으로 치달으면서 이성(異性)에 대한 견제와 경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급기야 이 문제는 사회갈등 및 국민분열을 야기하면서 이른바 '성 양극화', '젠더 전쟁'이라 불릴 만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악화일로에 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공존·상생하는 남녀관계, 나아가 정의로운 남녀관계를 지향하는 이른바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정립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sup>2)</sup> 진정성 있는 양성평등이 실현되어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중심주의·여성중심주의를 모두 내려놓고 남녀 모두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1)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한세대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독일 튀빙겐(Tübingen) 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Dr. theol.)를 받았다. 현재 21세기 교회와 신학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연구공동체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를 대표이다. 저서로는 *Das Todesverständnis der koreanischen Kultur*(한국 문화의 죽음 이해), 『현대세계의 위기와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 『자살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공저),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공저), 『죽음 묵회』(공저),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공저), 『젠더 이데올로기 심층 연구』(공저), 『우리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공저), 『죽음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공저), 『유토피아니즘과 하나님의 나라』(공저)가 있으며, 역서로는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의 저서들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희망의 윤리』를 번역하였다.

2) 곽혜원, "젠더-페미니즘이 강행하는 성혁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직신학연구』 제38권(2021), 236f.

할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문제는 페미니즘이 복잡한 분화와 논쟁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이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이 힘든 작업이라는 점이다. 이에 ‘물결론’(제1물결-제2물결-제3물결)은 1968년 「뉴욕 타임즈 매거진」(The New York Times Magazine)에 처음 언급된 이래 페미니즘의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틀로 많이 활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제1물결은 남녀 불평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하여 참정권 투쟁과 재산권 획득,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같은 법적 권리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특성이 있고, 제2물결은 피임과 낙태의 권리 등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요 쟁점으로 삼으며, 제3물결은 제1, 2물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여성이라는 범주의 해체를 지향한다.

그러나 물결론이 페미니즘의 주요 이론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필자는 사상적 변천에 따른 페미니즘의 계보와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복잡한 페미니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이론의 형성 시기를 물결론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구분 짓는다. 즉 제1물결(1790/1830년대~1920년대)에는 자유주의 여권론/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제2물결(1960년대~1980년대)에는 급진적 페미니즘/사회주의 페미니즘, 제3물결(1990년대~현재)에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트랜스 페미니즘/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제3세계 페미니즘/상호교차성 페미니즘 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세대와 2세대까지는 페미니즘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면, 3세대부터는 더 이상 페미니즘이 아닌 젠더학(gender studies) 또는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로 분류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자유주의 인권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순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페미니즘의 사상적 계보와 특성에 대한 이해

### 1. 자유주의 여권론

자유주의 여권론은 18세기 후반 서구 사회가 봉건제에서 자본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절대 군주의 폭정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며 등장한 새로운 이념이다. 이 이념은 인간의 본성이 이성에 있으며, 만인은 이성적 존재로서 동등하다는 사상에 기반한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자유와 평등은 그 이상과 달리 소수의 부르주아 계층 남성만이 누릴 수 있었고, 여성에게는 그 기회가 철저히 제한되었다. 당시 인간의 자유와 권리 의식을 고양시켰던 계몽주의 사상가들조차 여성이 감성적 존재이므로 이성적으로 더 우월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모든 인간은 각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던 장 자크 루소(J. J. Rousseau)가 말하는 ‘모든 인간’은 남성을 가리키고, 여성은 열등하고 종속적인 존재로서 남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일련의 여성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위대한 이념이 왜 여성에게는 미적용되는지 좌절하면서 남성 중심의 관념 및 관행에 맞섰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선언문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 발표되어 수많은 시민에게 공평한 권리를 보장했지만, 그 권리선언에 여성이 불포함되는 부당한

현실에 저항한 것이다. 1791년 정치활동가였던 올랭프 드 구주(O. de Gouges)는 이에 반발하면서 여성도 남성과 대등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la citoyenne)을 발표한 후 체포·처형당했다. 당시 여성에게 시민권을 행사하는 행위자임을 승인하는 동시에, 정책에서 배제된 객체이자 주체인 여성의 모호한 위상, 바로 여기서 여권론이 발흥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자유주의 여권론의 시초는, 프랑스 혁명 무렵 영국의 보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E. Burke)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1790)에서 “여성은 일개 동물에 불과하다”고 비하한 데서 촉발했다. 이에 분노를 느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 Wollstonecraft)는 『여성 권리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1792)를 발표하면서 “여성도 역시 이성적 능력을 천부적으로 보유했으므로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여성도 동등한 교육으로 잠재력을 실현할 계기가 마련된다면, 남성과 같이 온전한 평등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의 권리 옹호 발언은 여성주의 선언문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사후 한동안 묻히다가 19세기에 전개되는 영국과 미국의 여권운동에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은 자유주의 원리를 페미니즘에 최초로 응용함으로써, 자유주의 여권론에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는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an, 1869)에서 여성 억압의 근원을 법적 불평등이라고 기술, 남성에 대한 여성의 법적 종속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며 인간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밀은 남녀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 사례로 여성이 남성에게 법적으로 종속된 노예상태의 결혼계약을 들었다. 또한 그는 서구 중세사회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법적으로 허용되었던 아내 구타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밀과 그의 아내 헤리엇 테일러(H. Taylor)는 아내 구타 문제를 의회에 청원함으로써, 마침내 1878년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결혼소송법’(The Matrimonial Causes Act)이 제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의 많은 남성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기에, 밀은 남성과 동등한 제한 안에서 여성의 선거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주의 여권주의자들은 이성의 원칙에 충실할 때 여성차별적 제도나 관행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사회구조 자체를 철폐하기보다는 제도와 관습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학자들은 그들의 입장이 ‘여성해방론’이기 보다 ‘여권론’에 더 가깝다고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자유주의 여권주의자들은 주로 법적 평등과 교육 기회균등이라는 두 가지 우선 목표 아래 참정권 운동이나 법 개정 운동, 교육 운동 등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남녀차별의 철폐와 남녀평등의 확보는 그 자체로서 성취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그대로 둔 채 제도나 관행을 바꾸는 데 주력했기에 과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결국 자유주의 여권주의자들은 무법적 반대에 부딪혀 좌절했고, ‘정치세력화하지 않고선 남녀평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정치적 자각 속에 초기의 ‘온건한 여권운동’에서 ‘과격한 여권운동’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결정적 발단은 미국의 여성운동이 노예제도 폐지운동과 동역하다가

3) J. W. Scott/공임순 외 2인 공역, 『페미니즘의 위대한 역사』(서울: 앨피, 2017), 80에서 인용.

일어난 불상사에 기인한다. 당시 여성운동가들은 노예차별 구조가 폐지되어 흑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여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1840년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차 노예제도 폐지 세계대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이 대회 집행부는 각국 여성 대표와 여성 방청객이 남성과 함께 동석하지 못하게 했고, 대신 바닥 한쪽에 난간으로 사이를 막은 발코니에만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흑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일하는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의 불의와 위선에 큰 충격을 받은 여성운동가들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과는 독립된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마침내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운동을 여타 사회개혁 운동과 별개로 전개해야 한다는 자각 속에서 1848년 7월 미국 뉴욕 세네카 폴스(Seneca Falls)의 웨즐리 교회(Wesleyan Church)에서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한 '전국여성권리대회'를 개최했다. 미국 최초의 여성대회이자 여성 참정권 운동의 주춧돌이 된 이 대회는 여성 참정권 운동의 모체가 되었으며, 이후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존엄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하면서 여성이 비하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꼈던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E. Cady Stanton)은 "모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주장하는 바이다"로 시작하는 일명 '소신 선언문'(Declaration of Sentiments)을 발표했다. '미국독립선언문'을 모델로 삼은 이 대회 선언문은 여성 참정권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최초의 문건이자 조직운동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사실 자유주의 여권론은 여성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고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주지하듯이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약 500여 년간 최소한 백만 명의 '마녀 처형'이 집행됨으로써, 전쟁에 기인하지 않은 가장 엄청난 집단학살(특히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집단학살)로 기록된다.<sup>4)</sup> 19세기 초까지 거의 모든 유럽국가에서 여성은 법률상 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고 교육에서도 차별을 당함으로써, 사실상 여성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거부했다. 수세기 동안 여성이 거의 무(無)권리 상태였던 시대 속에서 여성의 교육 및 정치·사회적 활동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자유주의 여권론의 주장은 가히 혁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주의 여권론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면, 인류문명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일보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자유주의 여권론은 냉엄한 한계에 봉착했는데, 이때 여성 차별적 현실에 마르크스주의가 비집고 들어왔고, 여성들은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돌파구를 갈구하게 되었다.

## 2.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여권론의 발흥으로 남성과 동등한 법적·정치적 권리 획득을 위한 여성운동이 조직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성 참정권을 둘러싼 활동은 매번 좌절에 부딪혔다. 때로는 가혹한 탄압에 직면했으며, 남성중심적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은 철옹성처럼 강고했다. 참고로 여성의 참정권

4) G. Schormann, *Hexenprozesse in Deutschland*, Göttingen 1981, 303; C. Honegger, "Hexen", in: A. Lissner & R. Süssmuth & K. Walter(hrsg.), *Frauenlexikon, Tradition, Fakten, Perspektiven*, Freiburg 1988, 491-500; H. Küng/이종한·오선자 옮김, 『그리스도교 여성사: 2천년 그리스도 교회사, 박탈당한 절반의 진실』(서울: 분도, 2011), 133에서 재인용.

연대기는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1893)만 예외로 하고 20세기 초반에야 비로소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호주(1902)를 시작으로 유럽에서는 핀란드(1906)가 최초이고, 제1차 세계대전은 여성 참정권 확산의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노르웨이·덴마크(1915), 소련(1917), 캐나다(1918), 독일(1919), 미국(1920), 영국(1918: 30세 이상 여성, 1928: 전체 여성)에서 여성 선거권이 허용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분기점으로 100여개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프랑스(1944)를 필두로 대한민국(1948)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특히 주목할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가 1944년, 스위스는 1971년 매우 뒤늦게 여성의 투표권을 허용했고, 가장 최근에 여성 참정권이 부여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2015)이다.

자유주의 여권론이 발흥하여 여성의 권리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는 듯했지만, 당시 급물살을 탔던 노예해방과 달리 여성차별은 여전히 공고했다. 이런 상황을 일찍이 간파했던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사를 푸리에(F. M. C. Fourier)는 ‘페미니즘’ 용어를 최초로 고안했다. 그리고 나서 칼 마르크스(K. Marx)가 등장하여 초기부터 여성차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신성가족』(*The Holy Family*, 1845)에서 푸리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여성해방의 진전 수준이 곧 사회 진보의 척도라고 기술했다. 마르크스는 프리드리히 엥겔스(F. Engels)와 함께 여성해방을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여성의 동등한 정치·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옹호했다. 특히 그들은 제1인터내셔널(1864년 9월 런던에서 결성된 최초의 국제적 노동운동 조직)에서 여성이 지도적 역할을 하도록 후원했고, 노동조합과 파리코뮌에서 제기된 여성의 구체적 요구를 지지하기도 했다.

이후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마지막 유지를 담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Kommun*, 1884)에서 여성억압의 기원을 유물론적 분석으로 해명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결론은 잉여 생산에 따른 사유재산제가 문제의 시발점인데, 곧 생산소득의 남성 소유→남성의 사유재산을 물려줄 후손의 합법성을 담보하고자 부권제·일부일처제 확립→여성이 사회적 노동에서 배제되어 사적(부차적) 가사노동에만 종사→여성억압의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여성차별이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된 사회계급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가족형태는 인류역사의 보편적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출현한 계급사회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계급사회 철폐를 통해 여성차별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혁명적 전망을 제시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분석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들이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계급투쟁 관계로 재해석한 점이다: “역사상 최초의 계급투쟁은 일부일처제 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투쟁의 전개양상과 일치하며,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억압과 최초의 계급적 억압도 일치한다.”<sup>5)</sup> “가정에서 남편은 부르주아지이고 아내는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성스러운 가족(성부·성자·성령)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전자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후자가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일부일처제는 존총과 같다.”<sup>6)</sup>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더욱이 결혼 및 가족이 계급투쟁의 전장이고 남편과 아내는 투쟁 관계라고 믿기 때문에

5) F. Engels/김경미 옮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서울: 책세상, 2018).

6) Marx-Engels-Gesamtausgabe(MEG), vol. 3, p. 6.

일부일처제에 견고한 기반을 둔 결혼 및 가정을 해체하고자 했다. 그들은 남녀관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들을 생산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 여성해방의 필요조건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인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재해석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전제를 따르면서 여성억압의 궁극적 요인을 자본주의 체제, 특히 사유재산제로 보는 페미니즘의 분파이다. 여성문제를 마르크스의 경제 분석틀로 해명한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을 구축한 최초의 설계자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19세기 이후 노동계급 여성들이 사회운동에 진출하면서 등장했는데, 자유주의 여권론의 가장 큰 의제였던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여성 참정권 실현과 고등교육 기회 부여)만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과격하게 활동영역을 넓혔다. 당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주력한 것은 여성문제를 경제적 억압구조와 연결해 파악했는데, 특히 생존권 확보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노동계급 여성들의 조건을 주시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이념적·조직적 준비를 해 나가면서 한층 발전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후 블라드미르 레닌(V. Lenin), 알렉산드라 콜론타이(A. M. Kollontai), 클라라 제트킨(C. Zetkin) 등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을 대변하는 주요 논자로 활동했다. 특히 레닌 체제 아래 공공복지 분야 최초의 여성위원이었던 콜론타이가 주목할만한데, 그는 이혼과 낙태를 최우선으로 합법화했고 집단주거시설을 건설했으며 자유연애를 장려했던 인물이다.<sup>7)</sup> 그는 자신의 야망을 쟁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했는데, 특히 가정파괴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주장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모든 계급과 계층에서 가정의 온기는 사라질 것이고, 당연히 어떤 인위적 수단으로도 이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sup>8)</sup> 소련의 볼셰비키 공산정권은 맹종하는 공산주의자를 양산하기 위해 아이 양육을 국가적으로 통제했고 여성을 생산 노동 현장으로 내보냈는데,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공산정권이 여성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칭송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들이 내세웠던 여성정책들이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 후 실현됨으로써, 소련의 공산정권이 여성운동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강변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혁명 후 첫 단계가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의 폐지와 더불어 여성해방의 기본적 전제조건인 마련인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성차별적 초과 착취나 부당한 임금 조건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족법의 개혁을 통해 법률상의 불평등이 제거됨으로써, 결혼과 이혼 시 제약이 일소되고 여성이 평등권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분야에서 할당제를 법적으로 정착시킴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여성 우대정책을 통해 사회복지의 전면적 구현과 더불어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가 현실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1980년대 말엽부터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 독일 통일, 공산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 체제 도입은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하던 제도들을 급속히 해체했다고

7) 콜론타이가 쓴 자전적 소설 『삼대의 사랑』(*The Loves of Three Generations*)은 삼대에 걸친 여성들의 성·연애·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성윤리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콜론타이의 생각을 대변한다. 또한 ‘물 한잔 이론’은 성욕의 충족이 물 한잔을 마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콜론타이의 자유연애론을 대변한다.

8) E. M. Jones, *Libido Dominandi: Sexual Liberation and Political Control*, South Bend: St. Augustine's Press, 2000, p. 159.

지적하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 통일 독일에서는 과거 동독에서 허용되던 낙태권이 폐지됨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폐해로 회귀했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동구 공산 국가들의 몰락 이후 여성의 지위는 급격히 하락했다면서 자율적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자행되었던 여성 인권의 심각한 유린에 대해선 일체 침묵한다. 또한 이들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우대’, ‘여성 친화적’ 정책으로 포장된 정책들의 진면목, ‘여성차별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전통적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진입하려는 여성단체들의 숨겨진 목표를 간파할 수 있다.

### 3. 급진적 페미니즘

#### 3.1 급진적 페미니즘의 서막: 시몬 드 보부아르 & 베티 프리단

자유주의 여권주의자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재산권과 선거권, 교육의 기회 확대를 얻게 된 여성운동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점화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참정권 획득이 단지 부분적 승리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여성의 계속된 사회·심리적 의존이라는 권리 박탈과 더욱 첨예하게 대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신랄하게 제기한 대표적 페미니스트가 바로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1949)을 출간하여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를 통해 남녀의 성차(性差)가 사회·문화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던, 오늘날 성정체성을 나타내는 ‘젠더’ 용어의 근거가 된 말을 했던 시몬 드 보부아르(S. de Beauvoir)이다. 보부아르는 투표권 획득이 여성 종속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모순의 근원을 이동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투표권이 여성을 형식적 절차상으론 법 앞의 주체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만들었지만 사회·경제적 자율성을 획득하게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부아르는 여성이 여전히 남성에게 ‘제2의 성’이자 ‘타자’로서 봉사하는 한, 완전한 자율적 개인이라는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장 폴 사르트르(J. P. Sartre)와의 폴리아모리(polyamory, 복수연애·다자섹스) 형태의 계약결혼 생활 동안 보부아르의 파행적 성윤리는 낙태 옹호와 관련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보부아르에게 있어서 임신이란 불구가 되는 것이고, 태아는 그저 살덩이 ‘기생생물’에 불과했다. 프랑스에서 피임은 1967년 합법화되었지만, 1960년대까지 가족계획은 금기시되었고 낙태도 불법이었다. 이에 보부아르는 낙태가 금지되었던 1971년, 343명의 여성에게 서명을 받아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를 옹호한 “나도 낙태를 한 여성입니다”라는 내용의 “343인 선언”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낙태 합법화를 위한 선전운동을 조직했고, 자신의 살롱에 몸소 낙태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1974년 프랑스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베유 법’(일명 ‘임신 중단 합법화 법안’)이 제정되는 데는 보부아르의 입김이 컸다. 그러므로 보부아르야말로 여성의 생리·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을 최초로 공론화한 여성 이론가일 뿐 아니라, 평생 제도결혼을 거부하고 계약결혼을 실천함으로써 저주스러운 출산을 피해간 여성 운동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유럽에 급진적 페미니즘의 불씨를 떨어뜨렸다면, 북미에선 베티 프리단(B.

Friedan)의 『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 1963)가 발표되면서 여권운동은 ‘제2물결’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프리단은 대학 동창 20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와 가사노동에 갇힌 주부로서 살아가는 대다수가 느끼는 정신적 공허감을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공식 제기했다. 프리단은 ‘때로는 공허하고 불완전한 기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때문에 진정제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치유하는 처방으로서 가사노동을 잘 수행하는 동시에, 여성의 공적 경제활동 참여를 제안했다.<sup>9)</sup> 프리단의 제안은 후일 급진적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슈퍼우먼 신화의 원인 제공자’라는 맹렬한 비난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가사노동에 남성의 참여를 호소하지 않고 여성의 역할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프리단은 가정에 국한되는 아내의 처지를 비난하면서 유능하고 야망있는 남성을 부러워함으로써, 능력 본위의 남성중심적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리단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로부터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아내-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통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에 기초한 제도는 물론 생물학적 성을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했고, 제도적 변화는 물론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변혁을 통해서만 여성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프리단이 가부장제의 해체나 관계의 재구성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의 노력으로 환원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성애자로서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중요시한 프리단은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입장을 달리했다. 전자가 남성을 적(敵)이 아닌 평등한 사회를 이룩할 동반자로 인식한 반면, 후자는 남성 혐오적 여성운동 방식을 강하게 견지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리단은 그가 1966년 초대 회장으로 출범한 전국여성연합(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이 남성 혐오적 방향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오랜 내분을 겪기도 했다.

프리단은 급진적 페미니스트가 옹호하는 레즈비언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비판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레즈비언의 의제가 차별받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페미니즘의 기본 전제를 부정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록 프리단이 급진적 페미니즘의 서막을 연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문명사에 치명적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성의 권익 향상과 남녀평등이라는 페미니즘의 본래적 대의와 기본정신을 지키기 위해 남성 혐오적/남녀 분리주의적 여성운동과 레즈비언을 차단한 것은 매우 합당한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단이 남녀관계에 있어서 남성을 견제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할 동반자 내지 파트너로 인식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점들은 페미니즘 진영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깊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2 생물학주의 페미니즘: 술라미스 파이어스톤

시몬 드 보부아르와 베티 프리단이 지지기반이 되어 1960년대 후반 급진적 페미니즘이 본격적 행보를 내디뎠는데, 그 시발점은 68혁명 당시 학생운동 내 남성 우월주의에 반발하여 여학생들이 결별을 선언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미국에서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에 참가했던 여성 운동가들은

9) B. Friedan/김현우 옮김, 『여성의 신비』(서울: 이매진, 2005), 53-82.

전체 좌파 운동권으로부터 모멸적 대우를 받았는데, 특히 1969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반전대회에서 여성들이 연단에 올랐을 때 남성들이 입을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이 결정적 발단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성 운동가들은 좌파 운동권에서 다루는 거시적 담론(사회정의나 세계평화 등)보다는, 성차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성 억압의 뿌리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가부장제, 곧 '남성은 지배계급/여성은 피지배계급'으로 범주화하여 남성을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공통적으로 견지하는 관점은 남성을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여성운동에 호의적인 남성까지도 잠재적 억압자로 혐의를 두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임신·출산)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킴으로써 여성해방을 실현하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특별히 '급진적'(radical)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1) 제도상의 결함을 지적하는 자유주의 여권론과 달리 체제 전체를 문제 삼는다는 의미, 2) 여성억압을 계급억압의 부산물 정도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달리 여성억압의 뿌리깊은 근원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개인적인/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private is political)를 기치로 내건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와 사랑, 남성성과 여성성 등 가정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문제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가운데 '자매애는 강하다'(Sisterhood is powerful)는 슬로건으로 여성이 하나의 계급으로 뭉칠 것을 호소한다.

미국에서 태동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선두주자로 1969년 급진적 여성단체 '레드 스타킹즈'(Red Stockings)를 발기한 혁명적 유태인 레즈비언 술라미스 파이어스톤(S. Firestone)을 들 수 있다. 파이어스톤은 1965년 '민주사회를 향한 학생모임'에서 여성들이 직면한 불평등 문제를 발표하려 하자 남학생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던 일을 계기로 급진적 페미니즘을 강행하게 된다. 파이어스톤이 발표한 책 『성의 변증법: 페미니스트 혁명을 위하여』(*The Dialectic of Sex: The Case for Feminist Revolution*, 1970) 제목이 시사하듯이, 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성적 억압의 분석에 차용하되, 이들이 간과한 '성계급'(sex class)을 주목한다. 그는 성계급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강고한 계급이므로, "사회주의 혁명보다 훨씬 큰, 이를 포괄하는 성혁명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sup>10)</sup> 무엇보다도 파이어스톤은 여성억압의 핵심에 출산과 양육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처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자체를 여성억압의 토대로 보는 입장을 '생물학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일컫는다.

이와 같이 파이어스톤은 남녀의 생물학적 생식 기능의 차이에 기인한 성계급, 곧 남성이 정자를 제공하고 여성이 임신·출산하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여성이 차별당하는 젠더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차원의 근본적 혁명(성의 혁명, 경제적 혁명, 문화적 혁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가장 중요시한 성혁명은 여성을 생물학적 생식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출산·양육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파이어스톤은 '인공생식'(artificial reproduction)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피임과 낙태, 국가지원 양육의 확산 등을 통해 여성의 운명을 해방시킬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여성은 여성이라서 노예계급이 되었다. ... 임신은 야만적이다. ... 임신은 종(種)을 위해 개인의 육체가

10) S. Firestone/김민예숙·유순열 공역, 『성의 변증법: 페미니스트 혁명을 위하여』(서울: 꾸리에, 2016), 13ff.

임시로 기형이 되는 것이다. ... 인공생식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이 아니다”<sup>11)</sup>; “종족의 생식은 인공생식으로 대체될 것이다.”<sup>12)</sup>

결론적으로 파이어스톤은 남성이 여성의 성과 출산을 통제하여 여성을 지배해왔다고 분석함으로써, 여성이 해방하려면 스스로 성을 통제하고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출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과학기술이 발달한 후기 산업사회에서 출산을 여성의 자궁으로부터 분리하여 시험관 아기로 대체하면, 여성은 해방될 거라고 전망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파이어스톤은 여성억압을 낳는 핵심 요인으로 상정한 부모, 자녀로 구성된 생물학적 가족제도를 해체하고자 한다. 그가 구상한 시험관 아기는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시험관에서 착상·배양하는 것이 아닌, 인간을 기계로 찍어내는 올더스 헉슬리(A. L. Huxley)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1932)의 영향을 받은 바 있기에, 생물학적 가족의 해체를 전제한 것이다.<sup>13)</sup> 이와 같이 파이어스톤은 1960~70년대 활동했지만, 그가 예견했던 반(反)생명적인 일들이 대부분 현실화됨으로써, 오늘날 젠더-페미니스트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는 위험한 인물이다.

### 3.3 문화주의 페미니즘: 케이트 밀렛

급진적 페미니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또 다른 주역 케이트 밀렛(K. Millet)은 앞서 소개한 솔라미스 파이어스톤처럼 여성 종속의 근원을 파헤치기보다는, 여성 종속을 재생산하는 기제 자체를 폭로하는 데 주력한다. 파이어스톤은 생물학적 가족체계가 여성억압을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선 이를 철폐하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출산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밀렛은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데, 곧 생물학적 차원보다는 문화적 차원을 주요인으로 지목한다. 그가 특히 여성억압을 낳는 문화적 차원으로 꼽은 것은, 남녀 사이를 지배·피지배 권력관계로 고착화하는 가부장제 문화, 남녀의 내밀한 성관계에서조차 여성으로 하여금 ‘내면의 식민화’를 경험케 하는 가부장제 권력이다. 그러므로 밀렛은 가부장제 아래 구축된 성적 지위와 역할 등을 제거하는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론화함으로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여성억압의 대명사로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사실 두 페미니스트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레즈비언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여성다움/남성다움 식의 발상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 점에서도 견해를 같이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여성다움은 여성을 속박하는 족쇄이므로, 개인이 생물학적 성에 무관하게 좋은 자질을 자유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재평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곧 남과 나를 대립시키고 남을 지배하려는 남성적 성향과 달리 여성은 남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남을 돌보아 주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살리는 것이 여성은 물론 사회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성적 특성을 억압의 원천이 아닌 긍정적 차원으로 보는 페미니즘의 흐름을 ‘문화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밀렛인 것이다.

11) 위의 책, 287.

12) 위의 책, 289ff.

13) 위의 책, 298ff.

밀렛의 『성정치학』(*Sexual Politics*, 1970)은 현대 페미니즘 이론의 가장 논쟁적이고 기념비적인 저작이다. 미국 여성 참정권 선포 50주년이 되던 1970년에 출판된 이 책에서 특히 제2물결 슬로건이 된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는 명제가 유명한데, 이것은 성이란 권력과 지배 개념이 작동하는 정치적 영역이라는 의미이다. 밀렛은 결혼을 중심으로 한 남녀관계를 사랑이 아닌 가부장제에 기반한 지배·피지배 관계로 규정하면서 이를 전복시켜야만 성평등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그는 은밀한 침실(성행위)에 감추어진 남녀의 성적 위계질서, 성역할과 권력관계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표출할 뿐 아니라, 성이란 감옥을 해체하지 않고선 근본적 사회변혁, 인간해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내포한다. 그는 성의 지배가 가장 널리 만연한 이데올로기이자 가장 근본적 권력 개념을 제공한다고 확신하는데, 특히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 바로 그 권력의 뿌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므로 밀렛의 이론적 목표는 성과 성행위 속에 내재되어 젠더 불평등을 지탱하는 사회질서의 핵심인 가부장제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다.

가부장제 타파를 중심목표로 설정한 밀렛은 가부장제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직설법 대신, 주로 문학작품을 비평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현대 영미소설 속에 나타난 남녀 지배·종속의 가부장제와 성의 위계적 코드를 드러내는데, 일례로 데이비드 H. 로렌스, 노먼 메일러, 헨리 밀러 같은 당대 지명도 높은 작가들의 작품이 여성을 모욕적으로 희화화했다고 고발한다. ‘여성 구실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였던 작가 장 주네의 비참한 체험을 통해선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지배·종속의 성정치를 규탄하면서, 완전한 성혁명이 없는 한 진정한 인간해방은 오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밀렛은 문학비평을 넘어 에덴동산의 이브에서부터 프로이트의 ‘남근선호’, 당대 기능주의 철학과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의학, 교육학 등에 내재된 젠더 정치의 권력 메커니즘을 해부하고 폭로한다.

결국 밀렛은 이성애주의가 가부장제와 깊이 관련된다는 확신 속에 레즈비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는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 자충수로 보인다. 『성정치학』은 밀렛에게 큰 명성을 부여했지만, 건전한 방향설정에 실패한 그는 한순간에 비난의 대상으로 낙인찍힌다. 결정적 전환점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여성해방 컨퍼런스 도중 “왜 레즈비언이라고 밝히지 않느냐?”는 한 페미니스트의 질문에 밀렛이 “레즈비언”이라고 곤혹스럽게 고백한 사건이다. 그 이후 레즈비언 진영은 그가 마지못해 커밍아웃한 것을 비난했고, 페미니스트 주류는 그에게서 등을 돌린다. 당시 레즈비언의 남성혐오 성향이 페미니즘 운동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본 베티 프리단의 경고가 암시하듯이, 평생 조울증에 시달린 밀렛의 불운한 삶과 페미니즘 역사에 끼친 악영향은 이미 예견된 불상사이다. 가부장제의 기원에 의문을 제기한 밀렛에게 전통적·이성애적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언론과 주류 문단, 비평가들의 비판도 연일 이어지게 되었다.

### 3.4 레즈비어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레즈비어니즘(lesbianism)은 남성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이성애를 거부하고 동성애를 강조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한 조류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은폐되었던 남녀 간 가장 내밀한 관계 맺음인 성애(性愛) 문제를 공론화해왔는데, 그 극단적 분파는 이성 간의 사랑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이성애 중심주의(heterosexism)를 문제 삼는다. 이성애 중심주의는 여성으로 하여금 온통

남성에게만 집중케 함으로 남성 중심주의와 긴밀히 연결될 뿐 아니라, 남성 위주의 성애를 강요함으로써 여성을 남성에게 얽매인 부차적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레즈비언 관계는 평등하고 우애로운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급진적 페미니즘은 이성애를 평등한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부터 이성애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항전략을 제시하는데, 바로 여기서 레즈비어니즘과 연계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레즈비어니즘은 급진적 페미니즘에 내재된 남녀 분리주의를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4)</sup>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을 강요된 모성(母性)과 성적 노예제 확산의 가장 중요한 억압제도로 간주한다. 이에 그들은 미혼자에게는 아예 결혼을 하지 말거나, 기혼자에게는 남편으로부터 떠날 것을 권고한다.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보다 더 부정적인 것은 이성애 제도인데, 그 이유는 이성애가 여성의 단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힘을 소진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5)</sup> 이성애야말로 남성 우월주의의 초석이자 여성억압의 근원적 요소이며 여성들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지배에 대항하기 위해 이성애의 결속을 깨뜨리고 레즈비언 여성들과 동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이성애가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모두 레즈비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유독 레즈비언 성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남성의 삽입행위가 여성의 몸을 지배하는 원초적 행위이므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성관계'는 레즈비언 성행위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은 남성이 규정한 여성 정체성을 철저히 거부하고, 여성 스스로 규정한 여성 정체성만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이 규정한 여성 정체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오직 여성과의 관계에서 개발된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레즈비언들은 성적 엑스터시가 질이 아닌 음핵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남성 성기를 필요로 하는 질 오르가즘을 비판한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상향은 양성성(兩性性, Androgyny)의 유토피아, 곧 성역할 없는 레즈비언 공동체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여성은 여전히 이성애 결합을 끊지 못하고 레즈비언 공동체로 귀속되지 않는지 레즈비어니즘은 분명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페미니즘이 이론이라면, 레즈비어니즘은 실천이다”(Feminism is theory, lesbianism is practice)라고 했던 티-그레이스 앳킨슨(Ti-Grace Atkinson)의 말이 시사하듯이, 이 문제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와 이성애 페미니스트 사이에 주도권을 놓고 승부를 가리는 세력다툼도 결코 만만치 않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이성애자를 가부장제에 기생하여 이를 영속시키는 공범자, 양성결합을 바라는 남성의 예속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성애자의 회원자격을 규제하기도 한다.<sup>16)</sup> 사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와 이성애 페미니스트 모두 마르크스주의가 표방하는 사회구성체론(social

14) 레즈비어니즘은 68혁명 이후 촉발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 전선의 일환으로 개최된 남성 동성애자들의 게이 퍼레이드(gay parade)에 용기를 얻어 서서히 구축되기 시작했다.

15) R. M. Brown, “The Shape of Things to Come”, Myton and Bunch(eds.), *Lesbianism and the Woman's Movement*, p. 71; Jagger(1983), p. 271에서 재인용; The Purple September Staff, “The Normative Status of Hererosexuality”, p. 83; Jagger(1983), p. 272에서 재인용.

16) 이성애자가 전체 회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의 일부 단체는 기혼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심지어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숙자, 『한국 여성해방 이론』(서울: 지식산업사, 2005), 64.

constructivism)을 견지함으로써, 남녀 간 사회적 불평등을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성애 성관계도 전적으로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하는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는 독선적 논리로 남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동성애 성관계만이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강변함으로써 이성애 페미니스트와 반목하고 있다.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하여금 남녀 분리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게 한 흐름이 사실상 동성애를 성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전략으로 삼은 정치적 레즈비언리즘(political lesbianism)이다. 정치적 레즈비언리즘은 여성차별을 진정으로 반대하려면, 자신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남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여성하고만 일체감을 갖는 레즈비언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경향이다. 그 대표 이론가이자 1970~80년대의 급진적 페미니즘 조류를 현재까지 이끌고 있는 호주의 레즈비언 정치학자 실라 제프리스(S. Jeffreys)는 여성 간 강력한 연대와 남성의 철저한 배제를 견지한다. 제프리스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체 ‘리즈 레볼루션너리 페미니스트 그룹’(Leeds Revolutionary Feminist Group)은 모든 남성을 적(適)으로 선포하면서 가부장제에 기반한 모든 정치 시스템에 대한 대항을 넘어 남성과 완전히 분리된 여성 공동체라는 공상적(결국 실패로 끝나버린) 대안을 추구하기도 했다.

특히 급진적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프리스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 억압적 성역할을 재생산하고 성전환수술을 통해 스스로의 몸을 확대한다는 생각에서 트랜스 젠더를 배제하는 일명 ‘TERF’(티프,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주역이라는 점이다.<sup>17)</sup> ‘TERF’와 함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큰 논쟁을 야기하는 것은, 여성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추진되는 일명 ‘4B’(비혼·비출산·비연애·비섹스)라는, 서구세계에서 매우 보기 드문 독특한 운동방식이 성행하는 일이다.<sup>18)</sup> 페미니스트 자체 내에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4B 운동’은 ‘탈코르셋’(꾸밈 노동의 거부)과 함께 이성애 중심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제를 철저히 타파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강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치적 레즈비언들의 트랜스 젠더(특히 MTF)에 대한 복잡한 심경은 수궁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이 모든 남성을 적으로 규정하는 점은, 과연 모든 남성이 여성의 적일지, 그리고 남성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여성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일지 냉정히 자문해야 할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갈수록 극단적 성향으로 치달음으로써, 70년대 후반 들어와 제2세대 페미니즘 열풍은 사그라지게 되었다. 특히 캐서린 맥키넨(C. A. MacKinnon)과 안드레아 드워킨(A. Dworkin)이 극단적으로 변질시킨 급진적 페미니즘은 온건한 성향을 가진 페미니즘과 같듯이 잦았고 자체 내 분열도 심화되었다. 일반 사회에서도 급진적 페미니즘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오죽하면 급진적 페미니즘을 나치에 빗대어 ‘페미나치’(Feminazi) 또는 ‘페미나치즘’(Feminazism), ‘페미파쇼’(Femifascio) 또는 ‘페미파시즘’(Femifascism)이라는 신조어들이 성행했다. 이 신조어들은 극단적 형태의 남성 혐오적 여성 우월주의자, 전투적 남녀 역차별론자를 일컫는 말로서 페미니즘의 파행적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현장에서 활력을 잃은

17) 참고로 트랜스젠더를 포용하는 그룹은 ‘TIRF’(티프, Trans-Inclusionary Radical Feminism)이다.

18) 한때 북미나 유럽권에서 ‘4B 운동’과 유사한 형태의 여성 연대를 중요시한 여성운동이 존재했었지만, 현재는 남성 없는 결혼과 출산 등이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성 간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4B 운동’이 대대적으로 성행한 일은 흔치 않다.

페미니즘은 이 시기에 학계로 진출하여 학문으로서의 페미니즘이 주류로 편입됨으로써, 여성학(Women's Studies)이 본격적으로 학계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 4.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1960년대 말엽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체제 비판의 기반 위에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문제를 결합시킨 네오-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운동가들에 의해 탄생했다. 마르크스주의와 급진적 페미니즘을 결합시킨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어떻게 결합하여 여성억압을 발생시키는가에 집중함으로써,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가족의 해체를 목표로 상정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계급분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성억압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여성 특유의 섹슈얼리티의 범주를 무시했다는 비판의식에서 출발한다. 반면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을 분석의 중심부에 두지만, 여성 내부의 계급적 차이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보기에 마르크스주의와 급진적 페미니즘의 분석틀 안에서 양자가 서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체제가 여성억압을 낳은 근본적 구조라고 여기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나 가부장제만을 강조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모두 문제라고 비판하는데(이중 체계 비판), 왜냐하면 여성의 문제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을 통해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억압이 성적 위계와 계급적 착취의 결합으로 빚어진다는 애초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해명하는 일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에게 있어서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본주의 분석과 가부장제 분석을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병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결국 급진적 페미니즘이 변형된 한 아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적 페미니즘의 핵심적 개념을 통합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여성억압을 설명하는 데 이론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해방을 위해 자본주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가부장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종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마르크스주의에 페미니즘적 인식을 결합한 시도는 이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 이루어진 바 있지만,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라는 틀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 “사회주의 없이는 페미니즘도 없고 페미니즘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다”는 1970년 벨기에의 한 포스터에 사용된 문구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성격을 잘 요약한다.

1980년대 이전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와 동일하게 가부장제가 여성억압의 기본구조라는 확신 속에서 이중체계를 반박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인종차별, 섹슈얼리티, 이념, 문화 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느라 더 이상 여성억압 문제에 우선권을 두지 않은 경향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젠더퀴어(=성소수자, gender queer), 특히 동성애자 정치 투쟁에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젠더퀴어의 정치투쟁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는 더 이상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머물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의 해체로 나아간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기류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5.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1990년대 서유럽과 북미에서 논쟁의 초점이었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대한 선이해가 필수적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르네 데카르트(R. Descartes)로 대변되는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 주체와 객체로 이원화된 근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출발한다. 근대성이란 ‘나’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타자(타인·세계·자연)를 대상화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하여 타자를 정복하려는 기획으로서 한편으로는 정신/육체, 이성/감성, 주체/객체의 이항대립(二項對立)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이성·주체의 능동성에 대한 믿음이 근대적 세계관을 지탱한다는 것이다. 근대성에 대한 비판 속에서 형성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특징은 절대적 진리의 존재 부정, 전통적 가치체계의 해체,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 이성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 감정 및 본능의 중시, 기독교 사상에 대한 철저한 배격,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탈(脫)중심주의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대성 비판은 여성이라는 범주를 종전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일련의 페미니스트들(대표적: 시몬 드 보부아르)은 여성을 온전한 주체가 아닌 타자로 인식한 데카르트적 사유가 여성성을 더욱 평가절하했다고 비판했다. 1990년대 들어 와서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인식을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에 적용한 다양한 그룹의 페미니스트들이 등장, 장구한 역사 동안 견지되었던 남녀 이분법적 성정체성을 해체하는 노선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남성성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과정에 있다면서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했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독자적 젠더를 가진 모든 인간은 ‘퀴어’(queer)하므로, 남성성이나 여성성이나 생물학적 성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실재가 아닌 이미지로 덮여씌워지는 것이기에 부조리하다는 것이다.

성정체성을 해체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로서 퀴어 이론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대표주자 주디스 버틀러(J. Butler)를 꼽지 않을 수 없는데, 그의 저서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Gender Trouble*, 1990)을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및 제3세대 페미니즘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책의 논지는 성·성별·성적 취향이란 모두 가부장적 이성애 권력 규율에서 비롯된 지배담론의 결과물로서 사회학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더 이상 기존의 이분법적 성 구분에 근거한 여성을 위한 운동이 아닌 가부장적 이성애 권력의 지식 생산체계 자체를 전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페미니즘의 적(敵)은 가부장제와 함께 이성애적 지배담론이라고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라 버틀러는 젠더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젠더 간에 불가피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기술하면서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동성애라고 강변한다.

이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을 넘어 모든 종류의 사회 약자 및 피억압자의 해방은 물론 모든 경계를 허무는 트랜스 페미니즘(transfeminism)<sup>19)</sup>으로 나아간다. 트랜스 페미니즘의 주창자이자 드류(Drew) 대학의 여성신학자 캐서린 켈러(C. Keller)는 모든 것을 존재(being)가

아닌 과정(process)으로 이해한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과정철학을 성(sex)에 적용, 성이란 상호 얽혀 있음(entanglement)의 상태로 인식한다.<sup>20)</sup> 이는 그가 남녀로 선천적으로 정해진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는 젠더 부정성(aphophasis)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켈러는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생물학적 혼합을 주장함은 물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창안함으로써 남녀 이분법적 양성구조를 허물어뜨리기에 이른다. 과정철학에 근거한 과정신학의 기반 아래 중세 신비주의의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으로부터 사상적 단초를 얻은 트랜스 페미니즘은 자크 데리다의 해체 논리, 주디스 버틀러의 퀴어 이론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해방신학을 수용하여 젠더퀴어를 위시한 사회 약자 및 피억압자와의 연대를 추구하기도 한다.<sup>21)</sup>

포스트모더니즘 대변자들은 여성억압에 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차이와 다원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다. 이에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도 다양한 편차들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정신분석학, 실존주의, 해체주의 등의 사상적 조류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일만하다. 특히 프랑스에서 가장 활발한 정신분석학적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주목할만한데, 엘렌 식수(H. Cixous), 뤼스 이리가레이(L. Irigaray), 질리아 크리스테바(J. Kristeva)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실존주의자 시몬 드 보부아르(S. de Beauvoir), 해체주의자 자크 데리다(J. Derrida),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J. Lacan)으로부터 많은 지적 단서를 차용했는데, 일례로 보부아르의 제2의 성(타자) 개념의 수용, 데리다의 작가의식, 정체성, 자아의식에 대한 비판, 라캉의 프로이트적 사상을 인습 타파적으로 해석한 일 등이 그것이다.

한편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서구 백인 여성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비(非)서구 유색인종 여성들을 타자화한 점이 항상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서구 백인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속에서 제3세계 페미니즘-흑인 페미니즘-탈(脫)식민지 페미니즘 등이 제기되었는데, 왜냐하면 서구세계 여성과 제3세계 여성은 삶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제3세계 여성은 성차별 못지않게 인종차별, 제국주의, 식민주의, 정치적 탄압, 독점자본, 환경파괴, 빈곤과 전쟁 등으로 인해 고통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의 여성과는 다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3세계 여성은 문화적 제국주의나 인종주의 등으로 채색된 페미니즘이란 용어를 의문시해야 한다면서 서구 페미니즘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제3세계의 독특한 현실과 결합된 운동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제3세계 페미니즘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냉각기에 접어든 1980년대 후반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다차원적 억압을 이론화한 상호교차성 페미니즘(intersectional feminism)을 주창하여 기선을 제압하고자 했다. 1989년 미국의 법률학자이자 흑인 페미니스트인 킴벌리 크렌쇼(K. Crenshaw)는 '상호교차

19) 'transfeminism'이란 용어는 드류 대학의 여성 신학자 케서린 켈러(C. Keller)가 만든 합성어인데, 에미 고야마(E. Goyama)가 트랜스젠더(transgender) 여성이나 간성(intersexual)의 여성도 포괄하는 트랜스 페미니즘(trans-feminism) 운동과는 다르다는 점을 밝혀둔다.

20) C. E. Keller, "엷힌 희망: 트랜스 페미니스트 신학의 불/가능성", 『신학과 페미니즘의 대화』, 한-미 인문학 특별 협력 국제학술대회, 장로회신학대학교(2017. 10. 24), 29; cf. C. E. Keller/박일준 옮김, 『길 위의 신학: 하나님의 지혜를 신비 가운데 분별하기』(서울: 동연, 2020), 343ff.

21) 김영한, 『퀴어신학의 도전과 정통개혁신학』(서울: CLC, 2020), 182; 한상화, "트랜스 페미니즘과 동성애", 『기독교학술원학술포럼자료집: 젠더 이데올로기, 네오-마르크시즘, 트랜스 페미니즘과 기독교』(2018. 05. 04).

성 페미니즘'이란 용어를 고안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페미니즘 담론이 '백인-서구사회-생물학적 여성-중산층-대졸-비장애인'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내부 고발하면서 제기되었다.<sup>22)</sup> 패트리샤 콜린스(P. H. Collins)는 『흑인 페미니즘 사상』(*Black Feminist Thought*, 1990)에서 "교차성은 서로 맞물리는 특정 형태, 예컨대 인종과 젠더의 교차, 혹은 섹슈얼리티와 민족의 교차와 같은 특정한 형태를 지칭한다"고 명시하면서 여러 억압체계가 서로 교차·연결되어 동시에 작동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색인종(대부분 흑인) 페미니즘 담론은 백인 급진 페미니즘보다 늦은 80년대에야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 특히 교차성 인식론에 기반한 페미니즘 저작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의 핵심 논지는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의 문화적 양식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교차적 사회구조(인종-민족-성별-계급-장애 등)에 의해 서로 융합되고 상호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 III. 결어: 21세기 한국 사회의 젠더-페미니즘 현상과 새로운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15년 이래로 페미니즘, 정확히 말해 '젠더-페미니즘(gender-feminism, 급진적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혼합물) 현상'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선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에 이어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가 순차적으로 영향을 끼쳤지만, 한국 사회에선 거의 동시에 유입된 양대 시대사조가 혼합된 형태로 한국 여성들을 격동하고 있다. 필자는 두 시대사조를 한데 엮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양자를 함께 조망해야 이 시대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젠더-페미니즘의 발흥과 여성 주도의 성혁명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올바른 해결점을 마련하기 위해 양대 사조사조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젠더-페미니즘의 양상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 1. 남녀의 공존·상생이 아닌 극단적 대립·반목으로 나아간다. 2.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임신·출산)을 혐오하고 젠더 중립성(=성중립성, gender neutrality)으로 미화된 성별 해체를 지향한다. 3. 젠더퀴어(=성소수자, gender queer)<sup>23)</sup> 세력에 동조함으로써 양성평등(=남녀평등, sex equality)이 아닌 젠더평등(=성평등, gender equality)을 추구한다. 4. 이성애적 결혼에 비판적이고 동성애적 파트너십에 옹호적이다. 5. 일부일처제에 부정적이고 폴리아모리(polyamory, 복수연애)에 우호적인 자유연애 주의가 확산일로에 있다. 6. 소수 엘리트 페미니스트 중심으로 정치세력화·이익집단화하여 권력지향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전체 여성의 실질적 권익을 대변하지 못한다.<sup>24)</sup>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선 페미니즘이 파행적으로 발전했는가? 한국의 페미니즘은 1987년

22) 크렌쇼는 1989년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은 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흑인 여성 피해의 경험에 대해서는 왜 사법부가 놓치는가?"를 주제로 예일대 법학 저널에 50쪽짜리 논문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90년대 이후로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발흥했지만, 크렌쇼의 논문이 기원점은 아니어서 이미 사전작업이 존재했었다는 게 학자들의 중론이다.

23) 필자는 '성소수자' 용어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왜곡하기 때문에 '젠더 퀴어'(gender queer)라고 지칭한다.

24) 곽혜원, "젠더-페미니즘, 남녀의 상생 아닌 극단적 반목과 대립 부추겨", 「국민일보」(2020.02.18).

창립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현실 정치 진입에 주력해왔는데, 그 주요 활동은 여성 인권 3법 등 젠더 의제의 법제화, 낙태죄 폐지, 성주류화(=젠더 주류화), 성평등 개헌, 여성정치 세력화 등이다. 그러다가 페미니즘 논란이 크게 일어난 발단은, 2015년 여성 혐오에 대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남성 혐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Megalia)와 극단적 남성 혐오 카페 ‘웜어드’(Womad)에 엘리트 페미니스트들이 긴밀하게 관여, 비(非)이성적이고 반(反)사회적인 에토스를 조성하면서부터이다. 이로 보건대, 전체 여성의 공동선(共同善)보다는 소수의 정치권력과 이익추구를 위해 정치세력화한 젠더-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오늘의 파행적인 페미니즘 현상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젠더-페미니스트들이 남성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페미니즘을 표방함으로써, 페미니즘의 보편적 이론마저 왜곡시켜 버린 일이다. 사실 여성의 인권신장 및 남녀평등 운동에서 출발한 초기 건전한 페미니즘은 차츰 초심을 잃고 자가당착에 빠짐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곤궁한 상황이다. 1970~80년대 들어와 급진적 페미니즘이 본 궤도를 벗어나면서 페미니즘 광풍이 꺾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에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건전한 여성운동이 정착하지 않고, 1970년대 서구세계에서 성행하다가 퇴락한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현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들이 한물 가버린 급진적 페미니즘을 21세기 대한민국에 확산시키고 있으니 실로 유감스러운 것이다.

앞서 우리는 약 200여 년에 걸친 페미니즘의 사상적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성중심적인 체제에서 여권신장 및 남녀평등 운동으로 태동한 페미니즘이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시대사조로 변질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18세기 말엽 여성차별 문제를 제기했던 자유주의 여권론(제1세대 페미니즘)의 공헌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면, 인류문명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일보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여권론은 냉엄한 한계에 부딪혔고, 여성들의 차별받는 현실 속에 마르크스주의(Marxism)가 비집고 들어오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는 과거에 그토록 강행했던 자본가 vs. 노동자 계급투쟁을 넘어, 이제는 남성 vs. 여성 간에 극심한 대립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더욱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이르러 여성들이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여 성차(性差)가 사회·문화적 관행의 결과라고 강변하는 국면으로 치달는 현실은 여성차별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법을 절실히 요청한다. 그러므로 여성차별 문제가 인류역사의 장구한 세월 근절되지 못하고 고질적 악행으로 이어져 내려온 현실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복음주의자 존 스토틀(J. R. W. Stott)는 여성차별이 너무나 오랫동안 만연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지배적 사회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25)</sup> 그러면서 그는 페미니즘이 여성 성별 때문에 제도적·사회적 불의로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나온 운동이므로, 정의에 대한 여성들의 외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스토틀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는가?’라는 질문이 교회에 긴급한 과제를 던진다고 말하기도 했다.<sup>26)</sup>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일레인 스토키(E. Storkey)도 주장하기를, 기독교적 페미니즘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분별하고, 여성을 편취하는 사회를 여성의 존엄성과 평등과

25) J. Stott/정옥배 옮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서울: IVP, 2011), 367.

26) 위의 책, 370.

인간다운 인간이 될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로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했다.<sup>27)</sup>

그렇다 하더라도 페미니즘의 문제해결 방식이 성별 해체-성윤리 해체-가정 해체를 통해 인류(人倫)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또 다른 병폐가 되어 인류문명을 파탄시키는 대재앙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건전한 페미니즘은 인류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혜안(慧眼)과 인류의 안녕(安寧)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사려 깊은 책임감으로 역사 변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여성운동은 상당수 페미니스트들이 그러했듯이 성별 해체-성윤리 해체-가정 해체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별 질서를 지키고 성적인 절제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인 가정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축하는 여성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여성 주도 성혁명이 강행되는 21세기는 상생하는 남녀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sup>28)</sup> 즉 상생하는 남녀관계와 진정성 있는 양성평등 구현은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이다. 남녀 사이의 정의로운 공존과 상생, 진정성 있는 양성평등이 구현되지 않고는, 여성 주도로 성혁명이 벌어진 난국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없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남녀가 동역자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21세기 한국 사회가 진일보하려면 남녀가 서로 공존·상생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중심주의, 남성을 억압하는 여성중심주의를 모두 내려놓고, 남녀 모두의 존엄성이 회복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이념을 가진 사회운동이라도 협력·연대하는 휴머니즘(humanism), 정치적 진영논리가 아닌 순수한 인간애(人間愛)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남성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는 상호 긴밀하게 연관됨으로써, 남녀가 서로 상생·연대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세상에는 남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가 함께 싸워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은데, 남녀가 서로 분리된다면 모두가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실천, 곧 남녀 양성이 서로를 적이 아닌 상호 공존·협력하는 파트너이자 동역자로 존중하는 여성운동, 건전한 성윤리와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구축하며 참된 의미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운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 참고 문헌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동녘, 2017.

강숙자. 『한국 여성해방 이론』, 서울: 지식산업사, 2005.

강호숙.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의 리더십: 복음주의와 페미니즘의 만남』,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여성이 만난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하나님을 말하다』, 서울: 넥서스, 2016.

27) E. Storkey, *What's Right with Feminism*(London: SPCK/Third Way Books, 1985), 178.

28) 곽혜원, “젠더-페미니즘(gender-feminism)이 강행하는 성혁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237f.

- 곽혜원.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자살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인의 자살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접근』, 서울: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2011.
- 『존엄한 삶 · 존엄한 죽음: 기독교 생사학의 의미와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젠더 교육의 위험성과 올바른 다음세대 교육의 당위성”, <국회 세미나: 학교 교육에 침투한 젠더 전체주의 자료집>(2019.10.08.).
- “젠더 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국민일보』(16회: 2020.02.11/17회: 2020.02.18).
- “젠더 이데올로기의 도전 앞에 선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과제”, 김영한 외 8인 공저. 『젠더 이데올로기 심층 연구』, 서울: 밝은 생각, 2020.
- “젠더-페미니즘이 강행하는 성혁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직신학연구』 38권(2021).
-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제2종교개혁연구소 엮음,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 서울: 기독교문사, 2015.
- 『현대 세계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한들, 2008.
-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성경적 남녀관계와 여성 리더십』, 서울: 두란노서원, 2016.
-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서울: 두란노서원, 2018.
- 김영한. 『퀴어신학의 도전과 정통개혁신학』, 서울: CLC, 2020.
- 김진희.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 서울: 푸른역사, 2018.
- 백소영.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서울: 뉴스앤조이, 2018.
- 양혜원. 『종교와 페미니즘』, 서울: 비아토르, 2020.
- 윤김지영. 『지워지지 않는 페미니즘』, 서울: 은행나무, 2018.
- 정용석. 『기독교 여성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한국교회탐구센터 엮음.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교회탐구센터 IVP, 2018.
- 한국여성신학회 엮음. 『혐오와 여성신학』, 서울: 동연, 2018.
-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새 여성학 강의: 한국 사회, 여성, 젠더』, 서울: 동녘, 2016.
- 한상화. “트랜스 페미니즘과 동성애”, 『기독교학술원학술포럼자료집: 젠더 이데올로기, 네오-마르크시즘, 트랜스 페미니즘과 기독교』(2018. 05. 04).
- Beauvoir, S. de./이정순 역. 『제2의 성』, 서울: 을유문화사, 2021.
- Butler, J./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서울: 문학동네, 2008.
- Engels, F./김경미 역.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서울: 책세상, 2018.
- Firestone, S./김민예숙·유숙열 역. 『성의 변증법: 페미니스트 혁명을 위하여』, 서울: 꾸리에, 2016.
- Friedan, B./김현우 역. 『여성의 신비』, 서울: 이매진, 2005.
- Honegger, C. “Hexen”, in: A. Lissner & R. Süssmuth & K. Walter(hrsg.), *Frauenlexikon, Tradition, Fakten, Perspektiven*, Freiburg 1988.
- Jeffreys, S./김예나 역. 『래디컬 페미니즘』, 서울: 열다북스, 2019.
- Keller, C. E./박일준 옮김. 『길 위의 신학』, 서울: 동연, 2020.
- “엄힌 희망: 트랜스 페미니스트 신학의 불/가능성”, 『신학과 페미니즘의 대화』, 한-미 인문학 특별 협력 국제학술대회, 장로회신학대학교(2017. 10. 24).
- Kollontay, A. M. 외 3인 공저/정진희 역.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서울: 책갈피, 2015.

- Kuby, G./정소영 역. 『글로벌 성혁명: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라』, 서울: 밝은생각, 2018.
- Küng, H./이종한·오선자 역. 『그리스도교 여성사』, 서울: 분도, 2011.
- Jones, E. M. *Libido Dominandi: Sexual Liberation and Political Control*, South Bend: St. Augustine's Press, 2000.
- Malone, M. T./유정원 역. 『여성과 그리스도교』 3권, 서울: 바오로딸, 2012.
- Marcuse, H./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 서울: 나남신서1065, 2004.
- Orr, J./이장원 역.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서울: 책갈피, 2016.
- Schormann, G. *Hexenprozesse in Deutschland*, Göttingen 1981.
- Scott, J. W./공임순 외 2인 공역. 『페미니즘의 위대한 역사』, 서울: 엘피, 2017.
- Storkey, E. *What's Right with Feminism*, London: SPCK/Third Way Books, 1985.
- Stott, J./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1.